

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.

제45호 자랑스런 안전인 대한산업안전 대전충남지회 정연수 차장

가을의 따뜻한 햇살은 부드럽게 나의 머
리에 머물고 향기로운 코스모스 향기가 차창을 살짝 두드린
다.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양쪽으로 우거진 가로수가 터널처럼 연결되어
있는 국도를 달려 대한산업안전협회 정연수 차장을 만나러 갔다.

정연수 차장은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수자원공사 및 대림건설에서 시공쪽 일을 하
다가 1996년 11월에 대한산업안전협회 공채로 입사하면서 안전의 길을 걷게 되었다. 이제 곧 입사한지
9년이 되는 해에 그 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아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. 입사 후 수차례의
고비를 넘기며 이런 영광을 얻게 된 것은 모두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위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, 도움 때문
이라고 거듭 말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말한다. 처음 시공 쪽 일을 하다가 건설현장 안전관리를
하게 되었을 때 정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은 것 같아 무척이나 기뻐했다고 한다. 그러던 중 교량에서 떨어지는 사고

를 당해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
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금 다지게 되었다. 건설 현
장은 일반 제조업 현장보다 업종의 특성 상 작업방법이나 작
업환경 등에 더 많은 위험이 존재한다. 전년도 사망재해 통계
를 보면 총 2,452명이 사망하였으며 그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
사망자 수는 779명으로 제조업의 672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
다. 365일, 매일 매일 어느 현장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하루 평균
2.1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다는 말이다. 정연수차장 또한 이
러한 현실에 직접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
리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. 이렇듯 제조업보
다 건설업에서 재해가 높은 이유는 작업환경이 더 위험한 것
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안전



근로자를 감독하는
안전관리자가 아닌
द려해 주는
안전도움이 되어주길...

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작업의 불편을 이유로 보호장구 착용의 기피 등 안전에 관한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원인도 있다.
원래 교수의 꿈을 갖고 있었던 정연수 차장은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. “우선 잘하는
것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. 저보다 그 분들이 어떤 것이 위험한지 더 잘 알고 있죠. 전 단지 잘 모르시는
것에 조언을 해드리고 개선이 되도록 권유해 드릴 뿐입니다.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잖아
요?” 잘못을 먼저 지적하기 보다는 잘된 것에 대한 칭찬을 먼저하고 잘 되지 않는 것은 쉬운 예를 들어서 근로
자로 하여금 안전마인드를 깨우치게 하여 스스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.

앞으로 안전에 대한 지식을 더 쌓아 나가 아직까지도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근로
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가는 것이 꿈이라는 정연수차장. 안전은 나보다 남을 위해 노력
하는 일인 것을 그를 보며 다시 한 번 깨닫는다. 오늘도 어느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
하는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이팅을 외쳐본다. 

〈 임재근 기자 〉